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우리가 평생을 사는 것보다 한 찰나의 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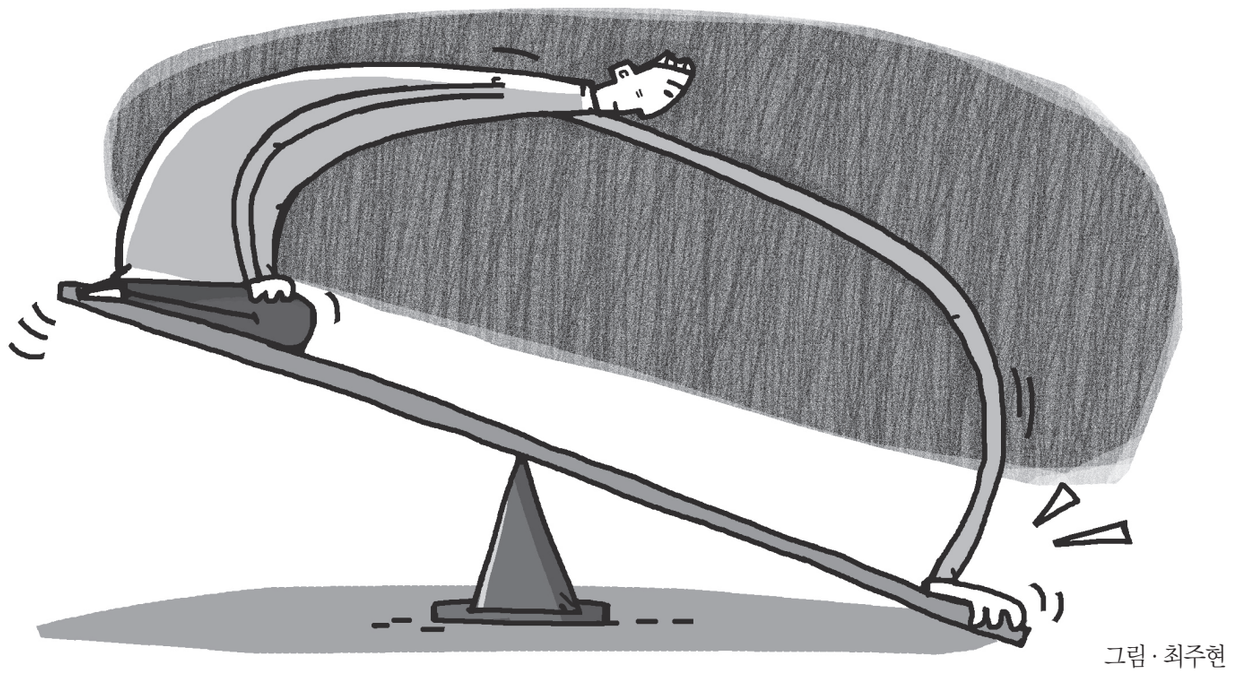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오늘도 영원한 오늘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항상 한자리를 하고 돌아가면서도, 나날이 밤이 지나고 낮이 오면 또 오늘이라고 하는 가운데 이렇게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항상 얘기하듯이, 개개인이 이 공부를 안 한다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후회할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정신을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자기 자신들도 모르게 이렇게 먹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정신계의 발전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께 막대한 피해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짐승들은 보이는 데서 서로 잡아먹지만 사람들은 보이는 데서 육체를 잡아먹히는 게 아니라 정신을 잡아먹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육체도 먹히게 되죠.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곤충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너무도 치열하게 살고 있죠. 어떤 때는 사실 쓴웃음을 웃지 않으면 안 되리만큼 그렇게 비참한 때도 있죠. '모른다면 차라리 괜찮을 것을….' 하는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먹고 입는 거는 스스로 따라오게 돼 있으니 넓게 마음을 쓰고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처님 도리는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나 묘해서 누가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단 하나 '자기가 어디로부터 와서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란 얘기죠.

찰나찰나 나투면서 돌아가는 이 한 생이 길다고 생각하면 길지만 짧다고 생각하면 아주 짧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가를 깊이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속에는 모두 자기가 산 대로, 산 차원대로 모습을 쓰고 다시 나올 것인데도 어떠한 모습을 쓰고 나올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가련하게 지금 발버둥이 치고 가는 길이죠. 하여튼 자기가 어떻게 살고 얼마나 진실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모가 나는 것도 둥글게 행할 수 있고 둥글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요다음 생에 나올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다음 생이래야 얼마 안 가면 다음 생입니다. 몸을 벗었다 하면 영혼은 거기에서 빠져나가니까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영혼이 있기 이전이 있는 까닭에, 우리가 깊이 생각 안 하면 안 되리만큼 돼 있죠. 그래서 '순간 몸을 벗으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 하고 한번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지금 금방 죽으면 그만이지 뭘 그래?" 한다면 할 말이 없죠. 하지만 영원토록 길은 돼 있고, 영원토록 벗어나지 못하는 이 길 속에서 헤매고 돌게 되죠.

우리는 물속에서 어떻게 어떻게 도를 닦아서 물 바깥으로 벗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고비가 또 있죠. 물주머니를 벗어나야 되고, 공기라는 이름하의 주머니 속에서 또 벗어나야 하고, 그 속에서 벗어나면 전체 속에서 또 벗어나야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길다고, 아주 하염없이 기니까 우린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진 마세요. 한 찰나니까요. 한 찰나라는 건, 우리가 평생을 사는 거보다도 한 찰나의 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 년 전, 몇천만 년 전의 한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한 생각과 맞먹습니다. 둘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 생각이 중요하니까요.

우리의 몸체 하나를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몸체 하나가 우주라면, 우주 속에 별성들이 헤아릴 수 없이 살고 작용을 하고 돌아갑니다. 큰 거나 작은 거나 똑같으니까 내 한 몸을 가지고 한번 체험해 보시고 경험해 보십시오. 천차만별의 모습들, 생명들, 의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둘이 아니다' 하는 뜻에서 '공(空)이 색(色)이다, 색이 공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몸이 있어야 속에 생명들이 살고, 생명들이 살고 있어야 몸이 있듯이, 둘이 아닙니다. 생명들이 없다 해도 내 몸이 없을 것이고, 내 몸이 없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을 것이고 그러니 그것이 어디 둘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생명체들은 어디서 와서 그렇게 더불어 같이 살게 됐는가? 내가 인연들을 지어서 그렇게 형성시킨 겁니다. 내가 인연들을 짓고 내가 형성시키고 내가 지금 움죽거리고 가게끔 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를 하나 연구해서 만들었다면 그 기계를 누가 만지며 누가 작용하게 하는 겁니까? 기계 만든 사람들이 다 작용을 해서 움죽거리게 하죠.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가 형성시킨 이 몸뚱이를 우리 자체가 끌고 가는 겁니다. 누가 끌어가고 끌어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자기를 형성시켜 놓고 바로 자기가 그 형성시킨 모습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작용시키는 거죠. 그것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원대로 거기에 다 부합을 시키는 거죠. 이건 자연의 진리입니다.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고 또는 우리 사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거기에 딱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게끔 해 놓은 것입니다.

오신통 자체가 컴퓨터라고 내가 얘기했죠. 사람이 만든 컴퓨터가 아니라, 이건 자동적인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말과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거기 다 수집이 돼서 입력이 돼 있는 것입니다. 뭐, 요만큼도 여축이 없이 질서 정연하게 입력이 돼 있는 겁니다. 누구의 탓도 할 수 없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 틈에 선지(善知)도 있지만 악행을 범하는 그러한 업식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 국가에서 별 사람들이 다 살듯이 이 안에도 별의별 마음, 의식들을 가진 생명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자기가 망가뜨리는 것도 있고, 자기 집을 빈집을 만들어 가지고 갖은 영계를 다 불러들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끌어들여서 미치게 만들고, 요즘 가지각색의 병들도 그런 걸로 인해서 다 들어오죠. 그거를 이름해서 영계성이니 유전성이니 인과성이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차원대로 반드시 이 세상을 또 살아야 하니까, 이거는 곰곰이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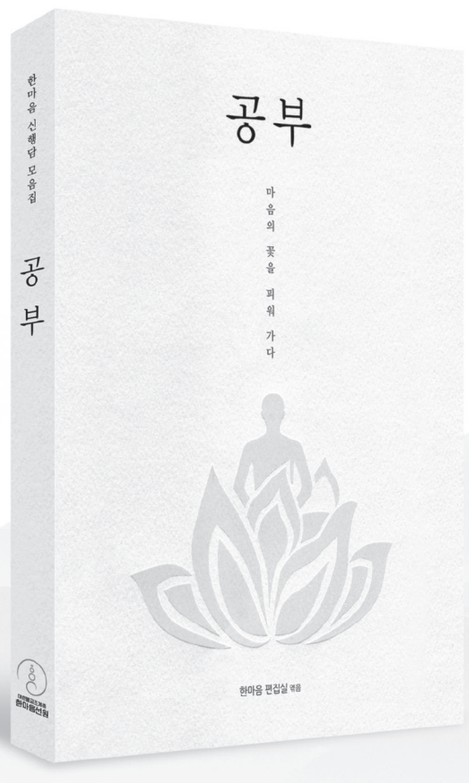
그런데 제가 정말 눈물 나도록 답답한 생각을 하게 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나는 이날까지 밤이나 낮이나 한 번도 내 개인을 생각한 예가 없습니다. 내가 개인으로서 어디 구경을 나간다든가, 내가 딴 사람들처럼 어디 좀 바람을 쐬러 다닌다거나 이런 점도 없습니다. 단 하나, 어떡하면 쉽게 여러분을 이끌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답답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은 그 업식 속에서 마음을 통해서 생각이 나는 거를, 자꾸 꼬리가 꼬리를 물게 오히려 꺼내 가지고 생각을 해요. 안 나는 생각도 일부러 말입니다. 일부러 생각을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나중에 끄트머리에는 커다랗게 만들어 가지고는 그것을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도 가지고 다니는 게 없죠. 보는 것도 가지고 다니는 게 없고, 듣는 것도 가지고 다니는 게 없고, 만나는 것도 가지고 다니는 게 없고, 먹는 것도 가지고 다니는 게 없고, 다니는 것도 가지고 다니는 게 없죠. 다니면서 그냥 놓고 다니죠? 다니는 것을 끌어안고 다닙니까? 다니는 대로 뒷발자취를 떼어 놓고, 보고 만나는 것도 끌어안고 다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생각을 해 가지고, 오히려 생각 생각을 해 가지고 뭉쳐 놓고선 이걸 답답하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생각나면 나는 대로 놓으라고 했는데, 나는 대로 그냥 용광로에다 넣으면 자동적으로 재생이 돼서 나간다고 그렇게 해도 놓질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놓고 가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가니까 자기는 더불어 사는 인생이지 나라는 게 없다는 얘기죠. 자기 혼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생각해 보세요. 바깥으로 사는 거나 안으로 사는 거나, 안에서 일어나는 거나 그 모든 생명들이 누굽니까, 그게? 자기 몸뚱이 안의 자기 생명들이고 더불어 같이 살고 있고, 더불어 먹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혼자 만나는 겁니까, 어디? 더불어 같이 한마음으로서 그냥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만나는 거죠. 그러니 혼자 만났다고는 할 수 없죠. 혼자 먹었다고 할 수도 없고, 혼자 산다고 할 수도 없고, 혼자 벌었다고 할 수도 없고 혼자 들었다고 할 수도 없죠. 혼자 똥 눴다고 할 수도 없고, 혼자 잔다고 할 수도 없고, 매사 게 그렇게 더불어 같이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했다는 생각, 자기가 산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 A18면으로 계속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